



‘워싱턴 페루아에 녹아든 론 와인’

푼디트 시라

Pundit Syrah

지역	미국 > 워싱턴 주 > 콜롬비아 밸리		
포도품종	시라 88% 그르나슈 6% 무흐베드르 4% 비오니에 2%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5-18℃		
테이스팅 노트	루비빛이 감도는 깊은 보랏빛의 레드 와인이다. 잘 익은 체리와 자두의 과일 아로마에, 훈향을 동반한 스모키한 코코아, 콜라 등의 아로마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꿀꽃과 같은 흰 색 계열의 플로럴 노트 또한 인상적이다. 입안에서는 블랙베리와 더불어 토스티한 바닐라의 풍미가 은은하게 퍼지며 슬레이트와 같은 광물성 특징 또한 느껴진다. 굉장히 부드러운 질감의 와인으로 피니쉬까지 부드럽게 느껴진다.		



제품설명



푼디트 시라는 기존의 틀에 박혀있던 시라 와인에 변화와 혁신을 더한 와인이다. 전통적인 론 스타일의 시라 와인에 콜롬비아 밸리만의 고유한 페루아 특성과 신대륙 와인의 창의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수상내역



2018빈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92점 TOP 100 선정
2018빈티지 와인 엔수지애스트 Wine Enthusiast 92점 TOP 100 선정
2016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3점

와이너리



테네트 와이너리는 샤프 생 미셸의 대표 와인메이커 밥 베르듀와 론 전문 와인메이커 마이클 가시에르가 만나 신대륙과 구대륙의 조화를 절묘하게 담아낸 프리미엄 브랜드이다.
전통적인 론 스타일에 워싱턴 콜롬비아 밸리의 고유한 페루아 특성을 조화롭게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담아내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누워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